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은 예수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을 때 회중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유대 성인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회당에 들어가 차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회당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익숙한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지금 낯선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고 서기관의 성경 해석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기관은 직업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의 설교가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서기관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하는 자의 권위였습니다.

권위란 무엇인가요? 권위는 말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조금 더 오래된 전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잘 포장된 세련됨에 있는 것도 아니고 풍성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바로 전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신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신앙인들이 성경의 탁월한 해석과 설교에 감동하여 놀라움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서기관의 성경 해석처럼 단순히 인간의 지적, 종교적 행위를 만족하는 성경 해석을 듣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도 빼앗긴다”(막 4:25)는 경고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서기관의 말씀에 만족하나요? 아니면 하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을 분별하며 경청하나요?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며 권위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을 되길 소원합니다.



축복과 비전 나눔 다함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의 비전을 어른들과 함께 나눕니다”

마 침 《주기도문》 다함께

조금 빠르게 R. K. Carter, 1886

1.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 하리라
 2.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영광 내게 업할 때에
 3.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4.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후렴
 굳게 서 리 영원하신 말씀 위 에 굳게 서 리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리 라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쉬운 기타코드 (capo=3rd) B^b→G E^b→C Cm→Am F→D Gm→Em F7→D7

다함께 드리는 기도 다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예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속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래 속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한 신자의 삶을 능히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함을 고백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1-22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 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

미국에서 ‘백화점 왕’으로 불린 경건한 신앙인 존 워너메이커는 다음과 같 이 말했습니다.

“비누는 쓸수록 녹아 없어지는 물건이지만 우리의 더러운 때를 씻어 준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다.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다.”

비누는 물에 녹아졌을 때 비로소 그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서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맛을 제대로 낼 수 없습니 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비누와 소금처럼 스스로 녹아지면서 희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6~8(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은 신학적으로 ‘케노시스’ 본문이라고 합니 다. 케노시스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이 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케노시스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백성인 우리들에게 진짜 가르침을 전합 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 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놀라운 신분을 넘어 철저히 주어질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아들의 권 위를 진실되게 드러낸 것입니다.